

바다와 맞닿은 목장

제주에는 오름과 어우러진 목장 뿐만 아니라 바다와 맞닿아 있는 목장도 있다. 바다목장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의 모습은 독특한 경치를 보여준다.



신천동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518-2 ~ 성산읍 신평리 199-3(약 2.9km)

하천로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26-7 ~ 표선면 하천리 770-3(약 1.7km)

신천로 |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888 ~ 성산읍 신천리 334-1(약 0.7km)

하천달산로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6-1 ~ 표선면 하천리 705-7(약 1.7km)

신천동로 | 신천신평바다목장



신천신평바다목장

신천리의 해안가로 이어지는 **신천동로** 인근에는 바다와 말이 어우러지는 바다목장을 만난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드넓은 대지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말들의 모습은 해안가의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듯이 제주는 말의 본 고장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진상마 사육은 조선 시대가 되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지대의 초원에 국영목장인 10소장을

을 설치하고 진상할 말들을 키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산간의 초원지대에 있었던 다른 목장들과 달리 신천신평바다목장은 해안가에 있는 목장이다. 사실 바다와 가까이 있는 이곳은 목장으로써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바닷바람이 심하고, 염분 때문에 풀이 자라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목장은 중산간 지대에서 사육한 말들을 육지로 진상하기 위해 옮길 때 잠시 말들을 풀어놓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을이 되어 푸른 빛이 사그라드는 늦가을이 되면 이곳은 감귤 껍질을 말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넓은 목장을 붉은 색의 물결로 가득 물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푸른 하늘과 들판, 바다까지 어우러진 신천신평바다목장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속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천로/신천로 | 하천리와 신천리

천미천을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인 **하천로**는 하천리(下川里)를 지나는 중심 도로이고, **신천로**는 일주동로에서 신천리(新川里)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천리와 신천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표선면과 성산읍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천미천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마을이어서 옛 이름의 기원도 유사하다. 예전에는 천미천 인근의 신평리와 신천리, 하천리를 내의 끄트머리라는 뜻으로 ‘내끼’ 또는 ‘넛끼’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하천 위쪽 마을인 신평리와 아래쪽 마을인 하천리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안가 천미연대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다시 신천리가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하천리 마을에는 힘센 여장사인 송씨 댁 며느리의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마을의 청년들은 무거운 들톨을 들며 힘자랑을 했다. 어느 날 송씨 댁 며느리가 물을 길러가다가 들톨 들기를 하고 있던 청년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빈 허벅을 지고 앞을 지나간다며 그녀를 타박했다. 그 말을 들은 송씨 댁 며느리는 화가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들톨 위에 앉아버렸다. 청년들은 그 돌이 어떤 돌인데 깔고 앉으며 난리가 났다. 송씨 댁 며느리는 보통 돌덩이를 가지고 왜 그러냐며 태연하게 받아쳤다. 청년들은 그녀를 놀리려고 그림 그 돌을 들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는 청년들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톨을 가볍게 들어올려 멀리 던져버렸다. 청년들은 당황해서 돌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했지만 그들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송씨 댁 며느리에게 찾아가 공손하게 부탁을 해서 들톨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해안가에 위치한 신천리는 왜적의 침입에 취약했다. 그러던 중 1552년 200여명이 왜적들이 천미포로 침입해 왔다. 적들이 상륙하자 연대와 봉수를 통해 관아에 연락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왜적에 대항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왜적의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몰래 배를 타고 빠져나갔다. 다행히 왜적들은 물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이 일의 책임을 물어 목사와 현감을 파직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왜적들은 몇 번 더 침입해 왔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잘 대비를 해서 모두 물리쳤다고 한다.

하천달산로 | 달산봉

하천달산로는 하천리에 있는 오름인 달산봉에서 따온 이름이다. 달산봉은 달의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라고도 하고, 중산간의 다른 오름들과 떨어져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의미라는 이야기도 있다. 달산봉은 경사가 꽤 가파르긴 하지만 산책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마을의 모습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고, 해비치해변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곳에 봉수대를 설치해 바다를 감시하고 주변의 오름들과 통신을 했다. 달산봉 옆에는 제석오름이 나란히 있다. 이곳은 천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해서 제석(祭席)오름이라 부른다고 한다.